

이달의 이웃

Contents

자립생활기술실천 영화관람 ‘캐리비안의 해적’	2
5차 보치아 자조모임을 진행하며.....	4
2017년 동대문구지원 (제6회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치아 대항전)	6
제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2강 ~ 5강을 진행하며.....	8
제2차 장애인활동보조인 자체교육	11
(자립생활주제 - 여가문화체험) 6월은 체험의 달~♪	13
(칼럼1) 장애인과 재난 안전사고	15
(칼럼2) 고통편의 시설과 장애인	17
장애인에티켓 , 호습기장애란.	19
이달의 정보	21
이달의 시	22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CMS자동이체 신청서	23
광고	24



자립생활기술실천 영화관람

‘캐리비안의 해적’

이동현



이번 자립생활기술실천 영화관람은 5월 30일 화요일 14시~17시까지 수유 롯데시네마에서 ‘캐리비안의 해적’을 관람하였습니다.

자립생활기술실천의 일환으로 진행되는 영화관람은 강북센터 회원들과 이용자분들의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프로그램 중 하나로써 홍보를 시작하면 사무실에 문의 전화가 쇄도합니다.

강북센터 스텝들은 30분정도 일찍 영화관에 도착하였습니다. 참여자분들이 원활히 영화 관람을 할 수 있도록 팝콘세트를 미리 준비하여 참여자분들에게 나눠 드렸습니다.

간단하게 영화를 소개하자면 전설적인 해적 캡틴 ‘잭 스페로우’ (조니 뎀)의 눈앞에 죽음마저 집어삼킨 바다의 학살자 ‘살라자르’ (하비에르 바르뎀)가 복수를 위해 찾아온다. 둘 사이에 숨겨진 엄청난 비밀……. 잭은 자신과 동료들의 죽음에 맞서 살아남기 위해 사투를 시작하는데……. 지금, 모든 것을 압도할 거대한 전투가 펼쳐집니다!





‘캐리비안의 해적’ 은 시리즈로 상영되어 많은 흥행을 거둔 덕에 참여자분들도 많은 기대 하시는 것 같았다. 참여자분들은 도란도란 이야기를 나누며 영화상영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영화관람 후 저희 스태프들에게 참여자분들은 이런 좋은 프로그램을 알게 되어 기분이 좋고 매우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다음에도 또 불러달라는 말씀도 함께 덧붙여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조사를 해주셨고 웃으시며 자유롭게 귀가하셨습니다.



영화출처 - <http://movie.naver.com/movie/bi/mi/basic.nhn?code=82473>

5차 보치아 자조모임을 진행하며…….

문지수



어김없이 6월에도 보치아 자조모임을 둘째 주 토요일 10:00 ~ 12:00에 진행하였다.

이번 보치아 자조모임은 담당자인 주영경 주임님과 나와 오재준 대리님이 스텝으로 참여하게 되었다. 우리는 9시에 사무실에 모여 보치아에 필요한 공과 미리 준비해둔 만족도 조사지 등을 챙겨 시립뇌성마비복지관으로 이동하였다. 재준대리님이 차량 지원을

을 해주셔서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다.

우리가 늦게 도착하지 않았음에도 보치아 자조모임에 참여자 분들 중 네 분이 먼저 도착해 계셨고 우리들은 서로 반갑게 인사를 나누며 체육관으로 이동하였다. 체육관을 개방하고 보치아 경기를 하기 위한 세팅을 하는 동안 참여자분들이 한두 분씩 오시기 시작하였다. 그렇게 참여자분들이 다 모이시고 출석체크를 한 다음 홍팀, 청팀으로 나누어 보치아 경기를 시작하게 되었다.

보치아 경기를 하기 전 스텝과 참여자분들이 번갈아가면서 표적구를 향해 공을 던지는 연습을 하였다. 우리들은 본격적으로 경기를 시작하였고 붉은색, 푸른색 공을 각각 표적구인 하얀색 공에 가까이 던지기 위해 열심히 던졌다.

“선생님……, 공을 똑바로 던져주세요.”





“잘하고 계세요.”

“조금만 더 세게 던져보세요.”

“훅통 각도를 조금 옆으로 해보세요.”

“앞아있는 각도 조금만 더 틀어서 던져보세요.”

김성진 회장님 지도 아래 우리들은

하얀 표적구를 향해 팔이 빠져라~ 열심히도 던졌고, 그 결과는.....

전반전 - 6 : 6 후반전 - 6 : 7로 박빙을 이루었다!

결국 6 : 7로 청팀이 승리를 거두었고 홍팀은 씁쓸한 패전을 맛보았다. 하지만 정정당당하게 경기를 치룬 양 팀 모두에게 박수를 보내고 싶다.

이번 경기 심판은 재준 대리님이 심판을 맞아 누가 봐도 공정한 경기를 진행하였다. 서로에게 칭찬과 격려의 박수를 보내며, 맛있는 점심을 먹었다. 경기를 지켜보는 내내 참여자분들이 열정적으로 노력하는 모습에 나는 감동받았다. 나 또한 모든 일에 열정적으로 온 마음을 다해 임하리라 다짐하였다.



제6회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치아대항전

이동현



2017.5.31.수 (09:00~18:00) 제6회 서울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보치아 대항전이 동대문구청 2층 다목적강당에서 진행되었습니다.

스텝으로 참여하기 위해 아침 일찍 동대문구청에 도착하였고, 김옥영님과 서태원님은 단체복을 입으신 모습으로 다목적 강당에 당당히 입장하셨습니다.



보치아 대항전 개인전에 출전하시는 김옥영님과 서태원님은 많이 긴장한 모습이셨고 그런 와중에서도 경기에 대한 승부욕은 다른 선수와 비교해 볼 때 밀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동안 자조모임을 통해 열심히 연습해 온 두 분의 실력을 발휘할 수 있는 날이 온 것입니다.

10:30분, 개인전 16강 경기를 치르기 위해 서태원님은 비장한 모습으로 경기장에 들어오셨습니다. 개인전 16강 경기는 상대방 선수와 5대5 상황에서 1점 차이로 서태원님이 이기셨습니다.

김옥영님의 16강 경기는 아쉽게 졌지만, 다음을 기약하며 점심 식사를 하시고 귀가하

셨습니다. (김옥영님 고생하셨습니다) 서태원님은 8강을 위해 점심도 거르시면서 경기 준비를 하셨지만, 아쉽게 8강에서는 패배에 쓴맛을 맛보았습니다. 그렇게 서태원님은 늦은 점심식사 후 귀가하셨습니다. (서태원님 고생하셨습니다)



보치아대항전을 치르기 위해 아침 일찍 먼 곳까지 오신 보람도 없이 경기가 끝났지만, 매 경기마다 진지한 모습으로 임하시는 두 분을 보며 그 열정이 부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두 분은 내년 보치아대항전에선 좋은 성적을 거두리라는 다짐의 다짐을 하셨습니다.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

2강 ~ 5강을 진행하며…….

허효숙

2017년 5월 26일에 시작한 ‘제11기 강북장애인자립생활학교’는 8강을 향해 열심히 달려가고 있다. 6월에 진행한 2강부터 5강까지의 강의내용을 요약 정리해보았다.



2강 장애인 당사자주의와 인권

1. 장애정의: DPI(Disabled People's International) 장애정의, 손상(impairment)- ①신체적, 정신적 혹은 감각적 손상으로 인한 개인적인 것 내부의 기능적 제약 장애(disability) ②물리적, 사회적 장벽으로 인해 다른 사람과 동등하게 공동체의 정상 생활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의 상실 혹은 제약

2. 패러다임의 변화 : ①패러다임(paradigm)이란, 어느 과학자 사회의 구성원들에 의해 공유되는 신념, 가치, 기술 등을 의미(Kuhn, 1996) ②최초의 장애패러다임은 ‘장애’를 개인의 비극으로 인식하는 ‘개인비극론’으로부터 출발(Johnstone, 2001) ③장애문제가 발생하는 위치가 개인이며, 문제의 원인을 기능적 제한이나 심리적 상실에서 기인 (개별적모델)

3. 개별적 모델과 사회적 모델 : ①개별적 모델 - 장애를 개인이 가진 의학적, 기능적 문제라고 보는 시각(치료모델 또는 개인중심 모델, 의료적 모델) * 의료모형 - 치료의 대상, 완전함 추구 *재활모형 - 주류사회 복귀를 위한 회복에 기초, 의료모형의 확대에 불과 ②사회적 모델 - 장애인이 살고 있는 사회 환경의 문제를 중요하게 인식하는 시각, 사회행동모델 또는 환경중심의 모델 (장애인을 억압하고 배제하는 것은 사회라는 전제에서 출발) *긍정모형 -본래 장애와 손상을 비극으로 보지 않음, 사회모형을 힘을 실어줌, 장애를 긍정하는 사회적 정체성 *권리모형 -장애운동의 일환으로 장애인을 위한, 장애인이 인정할 수 있는 그리고 정부가 책임지는 대책을 주장, 권리모형은 사회모형의 정치적 확장

4. 패러다임의 변화 : ①UN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은, 장애인을 시혜적 보호 대상으로 보던 관점에서 벗어나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인간의 기본적 권리를 향유하는 주체로서 인정하고 그 기본권 실현을 위한 국가사회의 의무를 인정시킴 ②장애인권리협약의 제정은 장애의 문제는 사회통합의 문제이며 기본적 인권보장의 관점에서 국가사회가 장애인당사자의 주체적인 삶의 실현을 위해 조치를 취하여야 할 문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장애에 대한 패러다임 변화에 큰 역할을 했으며 ‘장애패러다임’을 ‘인권’으로 귀결시킴



3강 탈 시설과 인권

시설거주 장애인의 인권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문제가 복잡한 만큼 그 해결책도 단순하지 않다. 우선 탈시설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어느 모로 보나 자연스러운 삶의 방식이 아닌 시설생활에서 지역사회에서의 생활로 옮겨져야 한다.

지역사회에서 직장을 갖도록 해야 하며, 소득을 보전해 주어야 하고, 활동보조서비스를 비롯한 의료적 지원을 해야 하고, 주거를 마련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의 경우 자립생활(independent living)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그 지원 방식도 제공자가 일방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식이 아닌, 수요자가 자율권과 통제권을 갖는 방식이어야 한다. 시스템을 구축하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이 사실이다. 쉽게 말해, 시설이 많다고 모두 탈시설화 시키면 제반 시스템이 구축되지 않는 상황에서 거주민들은 다시 노숙자로 전락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최선책은 아니더라도 현실적으로 당장 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는 것이 거주시설 문제를 걱정하는 사람들의 어쩔 수 없는 타협이자 비애이다. 요즈음 우리나라 장애계는 장애를 설명하는 패러다임에서의 커다란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4강 장애학과 당사자주의

1. 당사자주의 : - 한국에서는 당사자주의에 대한 논쟁이 장애인권운동의 영역에서만 활발했다. 학계에서는 기존의 전문가주의를 따르던 사회복지학이나 특수교육학, 재활학 등이 장애학적 사고관과 가치를 받아들이면서, 학문적 수용의 지평을 넓히는 식으로 대응했을 뿐이다. 장애인권운동의



지속가능성을 고민한다면, 이제는 장애학과 같은 정신을 이어갈 수 있는 학문적 토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당사자주의는 장애학의 학문적 뿌리이자 정신이 되기도 한다. 학문으로서 운동성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학과 유사학 맥락을 갖는데, 기존의 학문체계에서 연구의 중립성을 논한다면, 장애학은 비장애인 중심으로 편재된 사회의 수정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기존 사회의 틀에 반대되는 차원에서의 운동성과 방향성을 갖고 있다. 한쪽으로 치우친 기존의 패러다임이 중심을 잡으려면, 다른 한쪽으로 치우친 또 다른 주장과 정신이 있어야 균형점을 찾을 수 있기 때문이다. 장애학은 포괄적 인간학으로서, 장애인 당사자의 삶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학문으로서, 사회의 구조와 인식 변화를 위한 학문적 근거마련을 위한 노력을 시도하는 분야이다. 당사자 주의가 운동의 차원으로 발현되면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권운동이 되듯이, 당사자 주의가 학문과 연구의 차원으로 발현되면 장애학이 된다고 볼 수 있다.

5강 장애인과 부양의무제

1. 부양의무제란 : 소득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는 빈곤층이어도, 배우자, 자녀, 가족 중에 일정 부분소득이 있거나, 재산이 있으면 기초생활수급자가 될 수 없도록 만든 제도 2. 현황과 문제점 : ①광범위한 사각지대를 해소해야 -기초법의 비현실적 규제로 인하여 수급자 수는 3% 수준에서



변화가 없거나 오히려 축소되고 있으며, 최저생계비의 수준은 점점 낮아짐 -가장 광범위한 사각지대를 낳고 있는 것이 바로 부양의무자 기준 ②개인이 우선 책임지도록 하고 있어서 빈곤의 대물림과 가족 해체 조장 -실제로 가족으로부터 부양비를 받지 못하고 있음에도 간주부양비가 책정되어, 자녀, 부모의 자산변동에 따라 수급비가 들쭉날쭉해지는 상황은 수급자의 자존감과 안정적인 생활을 가로막는 처사이다.

5월 26일 ‘아름다운 소통’이라는 주제로 첫 강의를 시작으로 벌써 5강을 넘어 6강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매 회 강의마다 열의를 갖고 참여하시는 분들과 강사 분들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다. 더불어 앞으로 남은 6강부터 8강에 대한 많은 관심도 부탁드립니다.

제2차 장애인활동보조인 자체교육

오재준

2017년 6월 7, 8일 이틀간에 장애인활동보조인 교육이 실시하였다. 교육에는 개인정보보호와 성폭력 예방교육, 응급안전교육 세 가지 교육을 실시하고 이번 달부터 실시되는 구비 추가지원사업에 대한 설명과 활동보조인분들이 작성하실 서류에 대한 설명 및 이용자 모니터링 설문지를 배포하였다. 이번에 실시한 교육은 노동법에 의해 실시된 근로자 필수 교육으로 매해 진행되어야 한다.



이번에 새로 생긴 가든타워 17층 교육 및 프로그램실에서 오전 10시, 오후 2시 나누어 교육을 진행 하였다. 이번 교육을 준비하기 위해 다과를 준비하고 이용자분들께 활동보조서비스 만족도 조사 설문지는 활동지원법률에 의해서 상반기, 하반기 두 번 모니터링하기로 되어있다.

이번 교육에는 동영상 자료가 사용되었는데 안전교육에는 심폐소생술과 자동제세동기(AED) 사용법을 설명하였다. 우리나라는 한해 2만 5천 명 정도에 심정지 환자가 생기는데 생존율은 5퍼센트 미만으로 아주 낮은 실정이다. 그렇게 때문에 이번 심폐소생술 교육은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자동제세동기(AED)는 지하철이나 아파트단지, 공공시설 어디든지 설치되어있으며 사용법 또한 매우 간단하여 누구나 쉽게 사용 가능하다.

성폭력방지 예방교육에는 직장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일을 바탕으로 페이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드라마와 비슷한 내용을 만들어 교육을 받으러 오신 활동보조인 선생님들에게 쉽고 편하게 이해할 수 있었다. 직장 내에 여성들이 평등하게 사회활동을 할 수 있는 주변 분위기를 조성 할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 같다고 생각한다.



개인정보보호는 애니메이션형식으로 교육했음에도 불구하고 내용이 너무 어려웠고 이해하기도 힘들었다, 또한 개인정보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지 않아

조금 아쉬웠다. 다음번에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방법을 더 집중적으로 교육을 진행하였으면 좋겠다.

더불어 공지사항으로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 활동하시는 활동보조인분들 중에서 구형단말기를 사용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신형단말기로 교체해 드린다는 내용을 안내해드렸다.



구비시간추가지원사업에 대하여 교육을 한 내용은 신체적·정신적 이유로 원활한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이 어려운 발달장애인 중 장애인활동지원 1-2등급, 성인 발달장애인에게 월 30시간 추가 지원함으로써 장애인 가족의 부담을 줄이고 발달장애인의 자립생활과 사회참여 증진 기여하기 위한 사업이다. 이번 사업에 대상자는 강북구 내에 장애인활동지원 1, 2등급 중 만 19세 이상 만65세 미만의 발달장애인으로 학교를 다니거나 직장생활을 하는 대상자 및 시설이용자는 제외된다. 사업기간은 2017년 4월부터 12월 31일 까지다. 지원 금액은 월 272,000으로 시간은 30시간이다.

구비추가지원사업에 서비스제공방법은 장애인활동지원이나 서울시추가지원과 다르게 바우처 카드 결제방식이 아닌, 제공기록지를 바탕으로 활동제공기관을 통해 매월 공문으로 비용청구를 받고, 그 청구에 따라서 활동제공기관으로 서비스 비용 입금 처리한다. 추가사항으로 단가는 장애인활동지원사업과 동일한 9,240원이며 공휴일 가산단가가 들어가지 않는다. 또한 장애인활동지원시간을 모두 소진해야만 구비추가지원을 사용이 가능하다.

구비추가지원사업에서는 직장생활과 학교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들은 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다. 하지만 정작 서비스가 필요한 대상자는 이들이며 우리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직장생활을 하거나 학교생활을 하는 발달장애인들도 구비추가지원사업에 대상자가 될 수 있

게 지속적으로 강북구에 요구하고 있다. 내년 구비추가지원사업 예산이 더 늘어 서비스 대상자가 더 폭 넓게 선택되었음을 바란다.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앞으로 활동보조인 자체 교육을 가든타워 17층에서 오전, 오후로 시간을 나누어 실시할 예정이며 활동보조인선생님들이 최대한 많이 참여해 활동보조에 대한 정보와 고충을 공유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립생활주택 - 여가문화체험]

6월은 체험의 달~♪

박남주



가형, 나형주택 입주자를 대상으로 6월 초 진행된 체험은 '불가마24시찜질방' 체험과 '가상현실 VR카페' 체험이었습니다. 우선 가형 입주자인 정우영군을 대상으로 한 '불가마24시찜질방' 체험은 사실 입주자의 욕구보다 코디네이터와 활동보조인 및 주변인들의 고통(?)으로 인해 계획 된 것입니다.

발달장애 2급인 우영군은 위생개념이 약한 탓에 더운 여름날에도, 격한 운동 후에도 샤워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합니다. 자신의 목에 때가 시커멓게 끼어 보는 이의 식욕을 떨어뜨린다는 사실도, 왜 사람들이 자신의 옆에 오지 않는지도... 모르는 우영군은 코디의 진심어린 충고도 잔소리만 듣고 넘겼습니다.

덕분에 코디네이터는 날이 갈수록 심해지는 주변인들의 민원 때문에 극단의 조치를 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만 어디까지나 탈시설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위한 공간이 자립생활주택인 만큼 강제로 옷을 벗겨 씻기거나 하는 반인권적인 행위는 할 수 없었습니다.



고민에 고민을 거듭한 끝에, 우영군에게 자연스럽게 목욕 지도를 할 수 있고 위생개념을 조금이나마 심어줄 수 있는 방안을 찾았습니다. 바로 찜질방체험입니다. 우영군과의 상담 끝에 우영군이 잘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들로 구성된 몇몇을 섭외하여 찜질방 체험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우선 처음으로 섭외 한 사람은 우영군이 처음 자립생활주택에 입주했을 때부터 꼭 함께 해왔던 20대 남성 활동보조인입니다. 우영군과 같은 성별이라 자연스러운 목욕지도가 가능하고 우영군이 친숙하게 느끼고 잘 따르는 형입니다.



하이라이트는 성동센터 코디설외였습니다. 우영군이 본인 스스로 '짝사랑' 한다고 말하는 예쁜 여자선생님입니다. 다행히도(?) 우영군은 본인 주택 코디는 이성으로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물론 쌍방이 동일한 감정이라 유감스럽진 않습니다.

성동센터 코디의 합류로 덩으로 성동센터 주택 입주자 2명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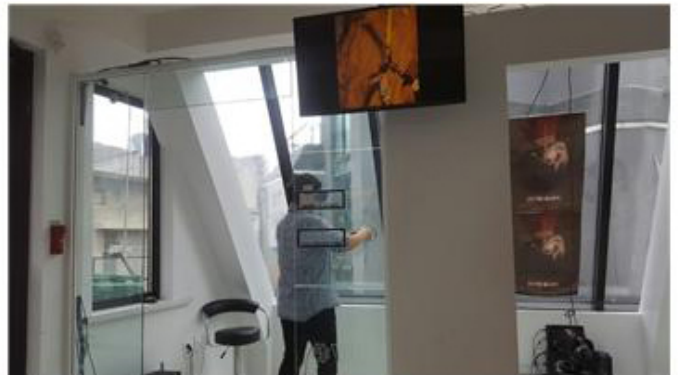
함께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는데 인강원이나 송전원 출신이 아닌 새로운 탈 시설 동료와의 만남 이것기에 긍정적인 평가를 해봅니다.

우영군이 불가마24시 찜질방에서 제일 좋아하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얼음방이었습니다. 찜질방에와서 불가마방은 들여다보지도 않고 얼음방에만 잠깐 다녀온 우영군은 TV 앞 명당자리를 꿰차고 앉아 열심히 식혜와 구운 계란을 먹으

며 나름대로의 힐링을 즐겼다고 합니다. 여담으로, 우영군 때 밀어주다가 활동보조인 손목이 나갔다는 후문입니다. (믿거나 말거나입니다)

다음으로 나형주택 입주자 박민선군과의 가상현실 VR카페 체험입니다. 민선씨는 직장생활로 인해 일정이 바빠 만나기가 힘든 입주자입니다. 장애도 경하여 혼자 뭐든 잘해내는 스타일이라 코디입장에서는 손이 덜 가는 입주자이기도 합니다.

상담이나 지원도 주로 전화나 키톡을 통해서 하는 경우가 많아 아쉬운 마음이 컸는데 고맙게도 하루 연차를 내고 체험을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가수 아이유의 광팬인 민선군은 작년과 같이 아이유 콘서트를 가는 것으로 여기문화 체험을 진행하길 원했는데 이번 년도는 아이유 콘서트 계획이 없다는 말에 살짝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평소 게임을 좋아하는 민선군을 위해 코디가 가상현실 게임을 체험할 수 있는 VR카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자 호의적인 반응을 보여 즉각 VR체험을 실행하게 되었습니다. 흥대에 위치한 VR카페는 민선군과 코디 둘 다에게 다소 먼 거리였기에 오전 중에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만나자마자 배가 고파하는 민선씨를 위해 근처 볶음밥집에서 약간 맛있지만 저렴한 가격의 김치볶음밥을 먹고 VR카페로 향했습니다. VR카페에는 여러 가지 가상체험과 게임들을 즐길 수 있는 공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 암벽등반 체험과 레이싱 등은 신체장애로 인해 익스트림 스포츠에 제약이 있는 민선씨에게 좋은 체험이 되었다고 본인 스스로 평가했습니다. 혼자 즐기는 가상현실 체험도 많았지만 코디와 함께 준비를 싸 죽이는 게임도 실감나게 즐기고 한 시간 동안 시간가는 줄도 모르고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올해 하반기에 직장과의 계약이 종료됨에 따라 사회복지사2급을 준비하고 있는 민선씨가 실업급여를 수령하며 사회복지 실습도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인데 이번 만남을 통해 직접 하반기 계획을 구체적으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여러모로 유익한 시간이었습니다. ^^

장애인과 재난 안전사고

이동현

재난은 인간의 통제범위 밖에서 예기치 않게 발생하는 사건이다 보니 재난 대비에 취약한 노인, 장애인, 아동 등 재난약자는 그 피해가 더 심각할 수밖에 없다. 뿐만 아니라 재난약자는 대피나 대응, 복구노력이 자신의 의지·욕구에 따라 조정되지 못하기 때문에 재난에 불균형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세월호 사건이후 재난안전에 대한 국민들의 관심이 상당히 높아진 가운데, 특히 재난·위험으로부터 자립적 안전이 취약한 재난 약자의 안전은 우선적 관심의 대상이 된다. 물론 서울시 소방공무원 신고사례분석에서 장애인의 재난 발생률은 1% 이하인 것으로 파악된 바 있듯이, 발생빈도는 낮은 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재난상황의 인지 및판단력, 그리고 대처능력이 비장애인과 같을 수 없기 때문에 심각한 사고로 이어질 확률이 훨씬 높다. 국제장애인협회(Handicap International)에 의하면 재난발생시 장애인의 60%는 간과되는 것으로 추정한다(Rollison, 2010; Hans, Asha, 2013). 재난유형 가운데 인적재난은 우리의 생활주변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사고들로 대다수를 차지한다고 할 수 있다. 예컨대 2012년 서울시 인적재난통계에 따르면 전체 인적재난(46,657건)건수 중에서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사고유형은 도로교통사고(86.8%)이며 그 다음으로 화재(12.3%), 붕괴(0.4%), 폭발(0.2%)사고를 차지하였다. 화재나 붕괴, 폭발사고는 불안정한 내·외부 주거시설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 정부는 2006년부터 농어촌 저소득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자체는 장애인의 주거안전을 목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선별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지자체가 추진하는 장애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의 성격은 세면장, 문턱, 주방, 화장실 개보수 등 주로 거주시설 내 편의시설 중심의 지원으로 추진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택개조의 범위도 넓지 못하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주거시설 내의 환기, 난방설비, 주요 구조부의 견고성과 같은 재난안전에 대한 문제를 비롯해 거주시설 밖 주변의 산사태 및 절벽 붕괴 같은 재난안전 관련 개조는 소홀한 측면이 있다. 언론에 보도된 바 있는 장애인가구의 화재로 인한 사망이나 난방시설 고장으로 인해 장애인이 동사했다는 기사 등의 사고는 장애인 재난안전의 사각지대를 보여주는 단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 맞춤형 재난관리서비스 개발

재난약자 중에서 장애인은 장애유형에 따라, 그리고 장애정도에 따라 재난대응을 다르게 적용하여야 한다. 서울시는 지체장애이용 재난위기관리매뉴얼과 장애인 픽토그램(Pictogram) 활용가이드를 e-book(<http://ebook.seoul.go.kr/web-http/form/r7EmailOpen.php?guid=4YS326RFKD>)과 인쇄물로 제작해 배포하거나 인터넷에서 제공하고 있다. 이 매뉴얼에는

위기대처요령과 안전사고 예방방법, 생활 속 위험요소 점검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이처럼 지체장애용 매뉴얼 외에도 다른 유형을 가진 장애인의 매뉴얼도 마련되어야 한다. 2011년 장애인실태조사를 분석한 본고 결과에서도 보았듯이 자폐성장애나 뇌병변장애, 지적장애인은 일상생활에서의 인지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들이 안전하게 대피하거나 대응할 수 있는 매뉴얼의 작성이 필요하다. 장애유형이 같더라도 장애정도와 주거지역, 보호자의 유무, 지역사회 네트워크 구축환경 등 장애인이 가진 조건은 다양하다. 다양한 조건의 장애인을 획일적인 매뉴얼과 대응체계로 관리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러므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장애인 각자가 스스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진단하는 장애인 재난대비능력점검표를 사전에 작성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따라서 장애인 각자의 재난대응 능력수준에 따른 맞춤형의 재난관리서비스 개발이 절실하다.

▶ 재난대응 교육 실시

구슬이 서 말이라도 꿰어야 보배라고 했듯이 아무리 훌륭하고 잘 만들어진 매뉴얼이라 쓸모 있게 적절히 활용되어야 값어치가 있다. 우선 적극적인 홍보가 절실하다. 장애인들이 많이 모이는 장소, 예를 들어 장애인 복지관이나 장애인 단체, 협회, 공공기관, 지자체, 보건소, 장애인근로사업장과 같은 오프라인뿐 아니라 관련기관 홈페이지를 통해 자료의 접근성을 높여야 한다. 재난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으나 만일 재난사고가 발생한다면, 피해를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이다. 예방이나 피해의 최소화는 평소 재난에 철저히 준비할 때 가능하다. 재난은 예기치 않게 일어나므로 이성적 판단력을 약하게 만들 수 있다.

▶ 주거환경개선사업의 확대

보건복지부는 농어촌에 거주하는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중 등록 장애인으로서 자가 소유자 및 임대주택거주자에게 개조 대상 주택의 상황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가구당 최대 3,800천원을 지원하고 있다. 주된 지원내용은 화장실 개조, 보조손잡이 설치, 문턱 낮추기, 싱크대높이조절, 주출입구 접근로, 경사로 설치, 지붕개량 및 주택 개조 시 파손된 도배, 장판 등 주택 내 편의시설·안전장치 설치 또는 이동편의를 위한 시설의 설치 및 제거이다. 현행 장애인 주택개조사업은 편의시설 위주로 지원되었으나 향후에는 재난안전 노력과 관련된 재난경보·탐지 시설의 설치, 그리고 재난위험 감소 노력을 위하여 노후로 인해 개·보수가 필요한 소방시설 및 안전관리시설을 강화하는 서비스 내용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참고자료 - 장애인의 주거 재난안전 실태 및 정책과제

- 사회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및 우선순위 선정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교통편의 시설과 장애인

전 난희

이동권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접근권(rights to access)과 함께 쓰이거나, 접근권의 하위 권리로 이해되기도 한다. 접근권이란 장애인이 사회 전문분야에 걸쳐 기회의 균등과 적극적 사회 참여를 목적으로 교육, 노동, 문화생활을 향유할 수 있는 근본적 권리를 말한다. 접근권에는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의 이동권과 시설이용권, 각종 정보에의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정보통신권(정보접근권) 등 세 가지 권리가 있다. 이러한 세 가지 접근권의 하위 개념 중 물리적 장벽을 없애는 것으로서의 권리 중 하나가 이동권이라 할 수 있다.

이에 근거해, 이동권은 물리적 장벽, 특히 교통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을 받지 않을 권리로 정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등에서의 제약은 주로 대중교통 이용에서 심각하게 드러나고 있다. 대중교통 또는 여객시설은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공공재이다. 따라서 그러한 공공재는 모든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들로 구성되어야 하며, 또한 그 시설의 이용에 있어 어떠한 사람도 차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러나 현재의 국내의 대중교통 시설은 비장애인들만을 위한 장비들만 갖추어 놓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이러한 교통수단의 이용에 많은 제약이 있을 수밖에 없다. 국민이면, 또는 시민이면 누구나 이용하도록 되어 있는 대중교통 시설은 장애인들에게만은 구경거리일 뿐이다.

또한 이러한 교통 시설 이용 시 나타나는 차별은 장애인들이 실현할 수 있는 개인적, 사회적 욕구를 원천적으로 제거시키는 것으로까지 이어진다. 개인적인 친구를 만나기 위해, 애인을 만나기 위해 어딘가를 이동하고 싶지만, 이동할 수단이 없어, 집안에서 발만 동동 구르는 상황이 발생하고, 노동자로서 삶을 살아가기 위해 구직활동을 못해 실업자로, 나아가 무능한 사람으로 취급받아야 하는 처지가 되기도 한다. 교육을 통해 끊임없는 자기 계발과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고 싶은 욕구도 이동이 자유롭지 못하기 때문에, 언제나 다른 사람들만의 행복으로만 바라봐야 한다. 뿐만 아니라, 이동하는 자유로움을 맛보지 못하면, 정치적 권리도 표현할 수 없게 된다. 선거를 하기 위해 집에서 투표장까지 이동해야 하지만, 그럴지 못해, 한 사람의 국민, 또는 시민으로서의 자기표현을 원천적으로 봉쇄당해야 한다. 또한 문화적 권리를 누리는 것도 이동 수단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해, 무언가를 보고, 듣고, 만지면서, 느끼고, 감상하며, 비판할 수 있는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된다.

대중교통 시설에서 보여주고 있는 장애인 이동권의 문제는 한 사람을 그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살아갈 수 있는 자격을 박탈하는 것으로까지 볼 수 있다. 누구나 직업을 가질 수 있고, 교육받을 수 있고, 나아가 자신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애인은 이동 수단의 부재라는 현실 때문에, 사회적 인간으로 살아가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다. 따라서 장애인이동권이란 단지 교통시

설에서의 물리적 제약을 극복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인간이 누릴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권리로까지 이해될 수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첫 번째 방법은 지하철을 제외하고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두 번째 방법 역시 장애인의 몸에 맞도록 차량을 개조하는 기술이나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운전은 물론 가족이나 외출지원 봉사자의 도움으로 자가용을 이용하지 않을 경우 외출도 생각하기 힘든 상황이다. 또한 도로의 정비 역시 장애인의 몸에 맞도록 차량을 개조하는 기술이나 투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들은 운전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도로의 정비 역시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전동휠체어를 타고 이동하기에는 어려우며 전동휠체어와 스쿠터의 경우 역시 가격이 비싸 보급률이 매우 저조한 형편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장애인이동권쟁취를위한연대회의(이하 장애인이동권연대)의 결성과 함께 장애인 이동권 확보를 위한 우리의 요구는 ① 지하철의 모든 역사에 승강기(엘리베이터)를 설치할 것 ② 장애인도 대중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대책을 즉각 강구할 것 ③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편의증진법)을 개정·강화할 것 ④ 장애인이동권 확보를 위해 정부와 장애인단체가 함께 협의할 '장애인이동권정책위원회'를 설치할 것 등의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이러한 장애인이동권연대의 요구사항은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에 있어 중요한 축을 이루는 '대중교통' 문제를 우리 사회 전체와 정부를 향해 본격적인 '의제'로 제안하는 의미를 가지기도 한다. 그러나 정부와 서울시는 '장애인편의시설 확충·정비 5개년 종합계획'에 의해, 지하철의 경우 설치 '가능한' 역사에는 '되도록'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버스의 경우에는 서울시를 4개 권역으로 나누어 무료셔틀 버스에 의해 장애인의 이동권을 해결하겠다는 안이한 전시 행정적 정책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이 전까지 「승강기 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승강기의 종류를 엘리베이터와 에스컬레이터로 한정하여, 장애인용 리프트에 대해서는 아무런 설치 및 안전기준을 적용하지 않았고, 오이도역 추락참사와 투쟁이후에야 산업자원부는 승강기의 범위에 장애인용 리프트(고정형/수직형)가 포함될 수 있도록 동법을 개정하여 입법예고 하였다.

앞으로 선진국 대열에 들어서기 위해서는 국민들을 위한 복지정책 특히 장애인들을 소외계층이 아닌 당연한 주류계층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정책과 방안이 요구되어진다.

참고자료 - 장애인 이동권과 대중교통 편의시설
- 장애인이동권보장문제

[본 글은 본인에 개인적인 견해일 뿐 센터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장애인에티켓

.호흡기장애란.

호흡기장애란……? 장애인복지법에서는 호흡기장애인을 최초 진단 이후 1년 이상이 경과하고, 2개월 이상의 적극적인 치료에도 불구하고 호전의 기미가 거의 없는 만성 호흡기 질환자로 정의하고 있다. 우리 인체가 살아있다고 말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 중 하나는 심장이 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숨을 쉰다는 것이다. 일생을 살아가며 매순간 우리는 숨을 쉬기에 살아 있음을 확인한다. 이러한 호흡의 근원인 폐는 코를 통해 들이쉬는 산소를 인체에 제공하고 신진대사를 통해 생긴 찌꺼기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설하는 기능을 갖는다. 그러나 이 체계에 산소부족과 이산화탄소의 과잉 축적 등으로 인해 장애가 발생, 세포가 죽는 것이다. 호흡기장애를 판정하기 위해서는 호흡곤란 정도 판정, 흉부 X-선 촬영, 폐 기능 검사, 동맥혈 가스 검사 등에 의한 객관적인 검사소견이 있어야 하며, 이밖에 필요한 경우 호흡기질환에 따라 흉부 CT, 기관지내시경, 운동부하 폐 기능 검사, 폐환기-관류 동위원소 검사, 폐동맥 촬영술 등을 시행하여 정확한 진단을 하여야 한다.

장애등급 판정기준에 의하면 호흡기장애는 폐나 기관지등 호흡기관의만성적인 기능부전으로 평지에서 보행시에도 호흡곤란이 있고, 평상시의 폐환기 기능(1초시 강제호기량)이 정상예측치의 40% 이하이거나, 산소를 흡입하지 않으면서 안정시에 동맥혈 산소분압이 65mmHg 이하인 사람(3급)을 최저장애로 인정한다.

호흡기의 구조와 기능- 우리 인체가 살아있다고 말할 때 무엇보다 중요한 두 가지 중 하나는 심장이 뛰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숨을 쉰다는 것입니다. 일생을 살아가며 매순간 우리는 숨을 쉬기에 살아 있음을 확인합니다. 이러한 숨(호흡)의 근원인 폐는 코를 통해 들이쉬는 산소를 인체에 제공하고 신진대사를 통해 생긴 찌꺼기를 이산화탄소의 형태로 배설하는 기능을 가집니다. 이를 한마디로 '호흡'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폐

는 넓은 의미에서 호흡기능을 담당하는 호흡기계와 주된 장기라 볼 수 있습니다. 만약 이 체계에 장애가 온다면 산소부족과 이산화탄소의 과잉축적으로 세포는 죽게 될 것이다.

호흡기는- ♪ 상기도 - 코, 부비동, 인두, 후두, 기관의 상부



☞ 하기도 - 기관의 하부와 기관지, 세기관지

☞ 폐 조직 - 폐 포관, 폐포낭, 폐포로 구성되어 있다.

그 외 호흡기계의부속구조는 흉막, 횡격막, 흉벽 및 호흡기계를 움직이게 하는 근육이다.

폐질환의 종류는 ①폐렴(Pneumonia) 폐의 조직에 병원체가 침입하여 염증을 일으키는 질환이다. * 원인균으로는 폐렴구균, 인플루엔자바이러스, 포도상 구균, 연쇄상 구균 등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라 균에 대한 저항력이 다른데 일반적으로 저항력이 약해졌을 때 폐렴에 걸린다. * 치료 및 관리는 항생물질, 기관지 확장 제, 거담제, 산소요법 등이 있다. ②천식(Asthma)- 호흡 시 쌔악 쌔악 하는 소리가 나는 천명과 호흡곤란이 발작적으로 되풀이되다가 몇 시간 후에 가라앉았다가 다시 재발하는 질환이다. * 원인은 알레르기 설, 자율신경 실조 설, 내분비조절 이상설 등 천식발작은 기도를 폐쇄시키고 호흡이 힘들어지게 된다. 가슴이 조여 오는 것을 느낄 수 있다. * 치료, 관리는 대증요법과 발작이 일어나는 것을 미리 방지하는 근본치료가 있다. ③폐결핵 결핵균이 폐에 만성 염증을 일으키는 병으로 결핵의 특성은 빈곤하고, 낮은 사회경제적 상태에 있는 사람, 군집한 장소, 허약한 건강상태 등에서 높은 발생률을 나타낸다. * 원인균 Mycobacterium tuberculosis으로 특성은 아주 느리게 자라고 몸에 들어와서 병을 일으킬 때 까지 기간이 길며 산소가 많은 곳을 좋아한다. 결핵은 단일 유지체로 세계에서 가장 으뜸가는 높은 치사율을 보이는 질환이라 할 수 있다.

만성폐질환의 예방 및 치료는 만성폐질환자의 일반적인 치료목표는 무엇보다도 증상을 호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며, 일상생활의 활동범위를 늘리고, 최소한의 근무여건을 높이면서 질환의 진행을 막아주는데 있습니다. 만성폐질환자의 가장 중요한 치료 원칙은 금연입니다.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폐 기능의 하락률을 감소시킬 뿐 아니라 일부 환자에서는 초기에 폐 기능의 향상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

http://www.gsrpd.org/bbs/board.php?bo_table=B45&dis_h=13&dis_t=2#tab_menu

www.gsrpd.org/bbs/board.php?bo_table=B45&dis_h=13&dis_t=2#tab_menu

이달의 정보

서울 구로구, 장애인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 설치

구로구가 장애인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전동휠체어 급속 충전기를 본관 로비에 설치했다. 전동휠체어를 이용해 구청을 찾는 장애인과 어르신들이 이동 중에 배터리가 방전돼 곤란한 상황을 겪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마련했다.

구청 무료 주차 시간도 비장애인 이용시간인 30분에 30분을 더해 1시간으로 늘렸다.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복지카드와 공무용 1시간 무료주차 확인증을 제시하면 청사 내 1시간 무료 주차가 가능하다. 구로구는 이외에도 청사 본관 자동문 설치, 민원실 내 출입시설 턱 제거, 도움벨 설치, 확대경 및 돋보기 비치, 수화통역 창구 운영, 장애인 화장실 개선 등 장애인들이 구청 방문 시 불편함이 없도록 다양한 장애인 편의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자료출처 - <http://www.bokji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4725>

2017년 폭염대비 무더위쉼터 현황(번2동)

내용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취약계층(홀몸어르신, 장애인, 노숙인 등)의 피해가 예상됨에 따라 폭염대비 시민행동요령 및 관내 무더위 쉼터 현황을 안내하오니, 관련 자료를 참고하여 건강관리 등에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 폭염특보 기준

①폭염주의보: 6~9월에 일 최고기온 33℃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②폭염경보: 6~9월에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 번2동 무더위 쉼터 현황 (2017.6.7기준, 세부현황 붙임 파일 참조)

○ 총 운영 개소수: 11개소

- 경로당 8개소, 주민센터 1개소, 복지관 2개소,

○ 휴일 및 야간 연장 무더위 쉼터 현황: 2개소

자료출처 - <http://www.gangbuk.go.kr>

아름다운 당신

너는 너 그대로가 아름다워
빛나지 않아도 충분히 알아볼 수 있으니.

빛나려고 하지 말고
시들려고 하지 마라.

너는 흐린 날에도
여전히 내게는 예쁜 사람이니까.

주저앉지만 마라.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내 마음을 들어줘’

이번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내 마음을 들어줘”는 중증장애인들이 자립생활을 함께 있어서 어려움을 공유하고, 감정해방 및 장애수용을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선임 동료상담가의 멘토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이에 강북센터에서는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 내 마음을 들어줘’를 실행하고자 하오니, 관심 있는 분들에 많은 신청바랍니다.

- 다 음 -

○ 사업개요

사업명	‘하반기 집단동료상담 - 내 마음을 들어줘’
일시	2017년 07월 20(목) 14:00 ~ 18:00
장소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교육실 1707호
강사	주강사 : 강우진 교수(송의여자대학교 가족복지과 교수) 보조강사 : 박계형 강사(장애인동료상담가)
대상	서울 및 강북구 지역 장애인
모집인원	총 12명 장애인 - 6명 보조인 - 6명
주최·주관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후원	서울특별시
접수방법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http://kbcil.co.kr 에서 신청서류 다운로드 후 이메일 kbcil@daum.net 접수 및 팩스 접수
기타문의	강북장애인자립생활센터 <u>전화: 02-908-7776</u> , <u>이메일: kbcil@daum.net</u> , <u>팩스: 0303)0799 - 1758</u>
강북센터 주소	주소: 서울시 강북구 도봉로 328, 가든타워 빌딩 11층 1119호 ☎: 01062

※ 상기 일정은 기관사정으로 인해 변경될 수도 있음.

